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22일(수)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여요. 로비에서!
함께 들어요. 지구촌의 많은 목소리!
- 인천시립합창단 세 번째 <정오의 로비음악회>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한가로운 정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인천시립합창단(예술감독 김종현)의 <정오의 로비음악회>가 오는 29일(수) 낮 12시에 인천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에서 세 번째 무대를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시작한 <정오의 로비 음악회>는 풍성한 합창의 울림을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친밀하면서도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김종현 예술감독의 친절하고도 전문적인 해설이 교감의 폭을 넓히고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든다.

공연이 진행되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로비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8M로 소규모 합창음악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이고도 좋은 음향을 가진 장소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창영상 촬영 장소로 활용되며 그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지구촌의 많은 목소리“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근 가운데 ‘세계는 하나’라는 명제를 되짚어보며, 우리의 귀에 익은 세계의 포크송들을 노래한다.

먼저 영국의 “런던 다리”, 독일의 “노래는 즐겁다”, 뉴질랜드의 “포카레카에아나”와 우리나라의 “아리랑” 등을 메들리로 엮은 <Folksongs around the world>가 연주의 시작을 연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Siksik si batu manikam”, 필리핀의 “Rosas Pandan”, 아일랜드의 “O Danny Boy” 등을 노래하며 다시 한 번 세계를 편안한 이웃처럼 다닐 수 있는 날을 그려본다.

김종현 인천시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만들어온 ‘지구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가 조각조각 나뉘어져 버렸다. 얼마나 걸려야 이 상처가 치유될지 모르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함께 노래하며 끊어진 교감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준비 소감을 말했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정오의 로비음악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을 사전예약 받는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좌석 띄어 앉기를 실시하며 입장 시 출입 확인 및 발열체크, 공연장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과 스태프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시립합창단 032-420-2784

[붙임1] 로비음악회 포스터



인천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

세번째

정오의 로비음악회

2021 . 09 . 29(수) 12:00~12:40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

선착순 50명 무료초대



 **인천시립합창단**
Incheon City Chorale

사전예약오픈 9월 14일(화) 14:00 인터넷 접수 art.incheon.go.kr
티켓문의 1588 2341 공연문의 032 420 2784

[붙임2] 로비음악회 사진

